

“포교 열심히 하는것도 수행이야”

원산 스님(백련정사 주지)

백련정사에 들어서면 육백 년 된 은행나무와 모감주나무가 객을 먼저 반긴다. 세월의 때가 그다지 묻지 않은 기와와 단청이 새롭게 단장한 사찰임을 말해주고 있으나, 백련정사의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나무와 사물에는 예스러움이 담겨있다. 대나무로 엮어 만든 죽림굴 무문관의 출입문, 말라버린 연잎을 보듬어 안은 채 얼어버린 연못, 묵언이라는 현판을 이끌고 가는 거북이 조각 등 눈길 닿는 곳마다 아련한 정취가 느껴진다.

원산 스님의 방에 들어서니, 승복을 입은 한 아버지가 장성한 아들을 출가시키려고 스님과 마주하고 있었다. 대처승인 아버지는 아들만큼은 올바른 길을 가는 수행자로 만들고 싶다는 원산 스님의 상좌로 받아들일 것을 간청하였다. 첫 눈에 영민한 기운이 느껴지는 청년도 출가의 뜻을 굳혔다면서 ‘학식과 수행이 높은 원산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자신의 뜻을 밝혔다. 아름다우면서도 왠지 슬픈 영화를 본 듯 내 코끝이 자꾸 맴맴해지는 것은 왜일까? 원산 스님은 출가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고 일렀다. 잠시 원산 스님의 출가 이야기가 들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세상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원산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어쩌면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그때 한 동네에 살던 동생형 되는 사람이 통도사 자장암에 출가해 있었다. 절집 생활이 어떤지 궁금하여 그곳에서 하룻밤을 머물렀다. 새벽이 되니 종소리, 목탁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절집 생활이 이런 거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나 하는 생각에 자장암을 나왔다. 동생형 되는 스님은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극락암이 있는데 그곳에 큰스님이 계시니 찾아봐라”고 했다. 결단을 내리고 새벽 4시에 극락암으로 올라갔다. 삼소굴(三笑窟)에서 경봉 큰스님을 친견했다. 경봉 스님께서 어떻게 왔느냐고 물길래 대답 “절에서 공부하고 싶어 왔습니다”라고 답했다. 경봉 스님은 찬찬히 훑어보시더니 “너는 과거생부터 불가에 인연이 깊다” 라고 말씀하셨다.

“경봉 스님의 그 한 마디 말씀에 세속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어지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절에 온 것이 너무나무 잘했다는 마음뿐이지, 대장부로서 이보다 더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싶어요”

원산 스님은 “은사 스님은 기골이 장대한 장부이시고 참선과 경학에도 막힘이 없었으며 붓글씨 또한 빼어나 도필(道筆)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다.”고 회상하였다.

은사이신 경봉 스님의 “참선만 하라”는 말씀에 5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선방에서 수행했다. 그런데도 공부에 큰 진전이 없었다. 참선한다면서 진전도 없고 경학에도 밝지 못하니, 이러다가는 무식쟁이 소리듣기 꼭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 직지사 관음 스님께서 여름철 한 달 동안 <선

문연송>을 강의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연송 강의가 끝나자 수강생중 10여 명은 따로 남아 관음 스님을 모시고 경학을 본격적으로 연찬하기로 뜻을 모으고 3년 결사에 들어갔다. 3년간의 집중적인 경학연찬을 마치고 관음 스님의 강맥을 이어받았으니 그때가 40대였다. 원산 스님은 더 공부하려면 남을 가르쳐야한다는 생각에 직지사 강원에서 강주를 맡았다. 그 후 통도사에서도 강주 소임을 맡아 후학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백련정사에 들어온 횡수가 서른 해 하고도 4년을 더 보탬 했수이다. 토굴에서 정진하겠다는 생각으로 허물어져가는 집 한 채에 전화도 전기도 없는 백련정사에 들어왔다. 불편함을 떨려고 시작한 불사였지만 하다 보니 도로도 내고 전기도 들어오고 법당도 새로이 짓는 등 큰 불사가 되었다. 구하기도 어렵다는 금강송으로 기둥을 세우고 단청도 최고 수준으로 마무리 하였다. 불사를 하면서 오래 전에 수행했던 토굴터를 발견했다. 대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는 토굴터를 수리하여 죽림굴이라 이름 붙였다. 죽림굴을 지어 자신을 그곳에 가두고서는 빗장을 걸어버렸다. 무문관 3년 결사를 한 것이다. 원산 스님의 무문관 수행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차다. 먼벽 3년을 마치고 나온다는 그날, 천여 명의 대중들이 백련정사에 운집하였지만 스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문 없는 문을 열고 나와 말 없는 말로 법을 설한 것이다. 말없는 말로 설한 법인이었기에 천여 명의 대중들은 각자 근거대로 받아들였으리라.

원산 스님은 무문관에서 3년 동안 무서우리만큼 치열하게 수행하였건만, 침실을 바라보는 연세인데

납니다. 선 공부에 열정을 더하는 것이지요. 다 알고 보면 버릴 것도 취할 것도 없어요. 참선도 해보고, 경학도 해보고 다 해보았는데, 열정을 해보지 않았으니 한 번 해 보고 싶었지요. 그런데 참선과 열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서산 대사는 ‘열불이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열불’이라 했어요. 그리고 영명연수 선사는 ‘참선을 하면서 열불을 하는 것은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호랑이는 본래 날개고 빠른데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나 참선과 열불을 겸해서 하면 성불이 빠르다는 말이 되겠지요.”

원산 스님은 무언가를 나누고 분별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열불이 곧 참선이요, 참선이 곧 열불’임을 강조하였으며, 불교의 요체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인데 수행과 포교가 둘이 될 수 없다면서 포교를 열심히 하는 것 또한 수행이라 했다. 그리고 ‘선과 교와 율은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삼위일체’란다.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동입니다. 선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을 찾기 위함이고 교를 배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며, 율을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을 닮기 위함인데 어찌 이것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백련정사의 내력을 보면 열불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은 통도사 성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옛 백련암 누각에는 백련정사 만일승회기(白蓮精舍 萬日勝會期라는 장문의 글이 새겨져 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 ‘동진 때 해원 법사가 여산 동림사에서 백련결사를 결성해 123명이 깨달음을 얻었고, 신라

‘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찾기 위함이고
‘교’ 배우는 것은 부처님 말씀 듣기 위함이며
‘율’ 실천은 부처님 행동 닮기 위함이다

도 2007년 하안거는 극락암에서, 동안거는 칠불암에서 결제하며 젊은 수좌들과 똑같이 수행하였다.

2008년 시월 보름에 원산 스님께서 ‘만일동참 만일열불회’를 입재하였다는 소식이 조금은 의아해하였다. 경봉 스님 문하에서 참선을, 직지사 관음 스님 아래서 경학을 전수하여 선교쌍수(禪教雙修)를 이룬 원산 스님께서 열불선을 하신다니 놀랄 수밖에 없다. 그동안의 화두 참선 수행은 어찌고 열불선에 돌아섰는지 내심 궁금하였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버리고 열불선을 취하는 것인지 여쭙었다.

“전의 공부를 버리고 열불을 취사선택하는 것이 아

의 발징 화상은 강원도 건봉사에서 ‘만일열불회’를 창설해 31인이 허공에 올라가게 되었다’고 만일승회기에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련결사란 바로 열불회를 뜻하며, 허공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극락세계로 갔다는 뜻이란다. 원산 스님은 만일기도를 봉행했다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백련정사라는 사명이 발견돼 백련암을 ‘백련정사’로 개명한 것이다.

“그 후 더 이상 허공으로 올라가는 기록은 없었지만, 전국 각지의 제방에서 그 뜻을 계승해 만일열불회를 창설하여 부지런히 수행하는 등 말세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고 해요.”



백련정사는 공민왕 때 창건하여 한때는 열불당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근래에는 운봉, 성철, 향곡, 구산 스님 등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선승들이 정진한 선원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원산 스님이 주석하고 부터는 천일기도를 회향한 아름다운 기도도량으로 자리매김 했다. 원산 스님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백련정사를 영축산 통도사총림의 열불원으로 인정하였으며, ‘만일동참 만일 열불회’를 창설했다.

만일열불회는 ‘1만 명이 한자리에서 1만 일간 열불선을 통해 깨달음과 안락을 얻고 정도에 왕생함을

발원하는 기도로 불교의 전통 수행법’이다. 천일을 열 번 더하여야 만일이 되니 회향이 언제인지 손가락으로 꼽아보기도 힘들다. 2028년, 원산 스님이 93살 때 회향하게 되는 것이다. 만일동단의 열불이란 설 새 없이 돌아가는 시간의 플레이백 속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는 인간의 강인한 원력이 스며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만일(萬日)이라는 그 긴 시간보다 만일동단 부처님을 염하겠다는 인간의 의지가 더 숭고하게 느껴진다.

원산 스님은 ‘만일열불회’ 회향을 위해서도 오래 살아야 한다고 농했다. 경봉 스님께서 92살에 입적하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바로보인 선문연송 12권 출간
전 30권중 제 12권 출간! (각권 15,000원)
전등록보다 더 많은 공안도리를 곁집한 선문연송.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명안중사의 안목으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철구의 집합이 역할을 하고 있다.

달다 전강 대선사 범어집 값 15,000원
이제는 전설이 된 한국 근대사의 거목 지혜제일 전강 대선사님의 최상승법과 예리한 지혜, 선기로 넘쳐던 삶. 전강 선사님의 법문과 일화를 대원 선사님이 다시 보았다.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정맥선원 선거방 법문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연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현실 / 선문연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번아침정 법문 051-503-6460
02-3494-0122 www.zenparadise.com

하늘의 기운, 신의 승결, 조상의 기체
부적! 이제 대용품으로는 안된다
槐 槐 黃 紙 지

삼보에 귀의하고 본제품 피항지는 왜나무(일명 귀신나무)의 꽃과 열매(풍갈은것)을 당년 7월7식(전삼일, 후삼일)에 소수가 직접 채취(강원도 영월)하여 그늘에 잘 말린후, 동지날(전삼일, 후삼일)에 즙을 내어 그물로 9번 순수 한지에 물을들여 건조시키는 까다로운 물진입니다. 작업시에 발생하는 역한, 냄새와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일반인들의 가정에서는 제작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대용품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치자물들인 참호지로 그 용도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는 옛 선사님의 비법 그대로 순수 단나무로 수직적인 전주현지를 엄선, 정확히 9번 물들여 건조하였음을 부처님의 제자로서 인정하며, 맑은 물만이 한가면에 제작되지 못하는 점을 양지하시어 미린 주문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주문처: 전북 장수군 계북면 농소리 589번지 동원암 판문점 (063)353-1232 / 010-6229-0108
통영: 507079-51-012924(예금주:이정주)
E-mail: m3531232@hanmail.net

생명 에너지를
궁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미술

민속죽염 21년 전통
조상의 열과 손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색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색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125g 30,000원
알갱이 자색죽염 230g 55,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기본 배움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주지스님께 권합니다

지장보살님의 가피아래 태아영가를 정성과 사랑으로 품어 안고 극락왕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장보살님(소불)을 법당에 모셔두고 낙태영가 천도대신 지장보살님을 한 佛직 모시도록 권장하시면 쉽게 동참하시어 사찰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불크기 약7치 제조 국산 / 디자인 등록 출원

문의전화
051)336-9922 / H.P 011-567-2626

부산 북구 법정사 주지 합장
계좌번호 : 농협 177467-51-075633 법정사
새마을 1615-09-045513-6 법정사